

아랍에미리트 가금육 수입 현황, 한국 삼계탕의 운명은?

육류 중 가금육의 소비가 두드러져

MENA(Middle East&North Africa)지역은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돼지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 할랄 육류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곳이다. 육류 중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은 가금육으로 2016년 기준 전체 육류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하는 가금육은 브라질산과 미국산이 가장 많으며, 2005년에서 2017년 사이 브라질산 가금육의 수입량은 289%, 미국산은 949%가량 급증했다. 특히 브라질산 가금육은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수분 함량이 낮아 아랍에미리트에서 수입하는 가금육의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재 세계에서 닭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인당 닭고기 소비량 증가, 가금육 내수 생산 부진 문제 등에 힘입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USDA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내수 생산을 통해 공급되는 가금육은 소비량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가금육 내수 생산은 물 부족, 경작지 부족, 사료곡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 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질병으로 인한 닭 사망률, 더운 기후로부터 양계장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에너지 비용 발생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정부 지원 부족, 브라질·미국산 저가 가금육 제품과의 경쟁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아랍에미리트의 가금육 수입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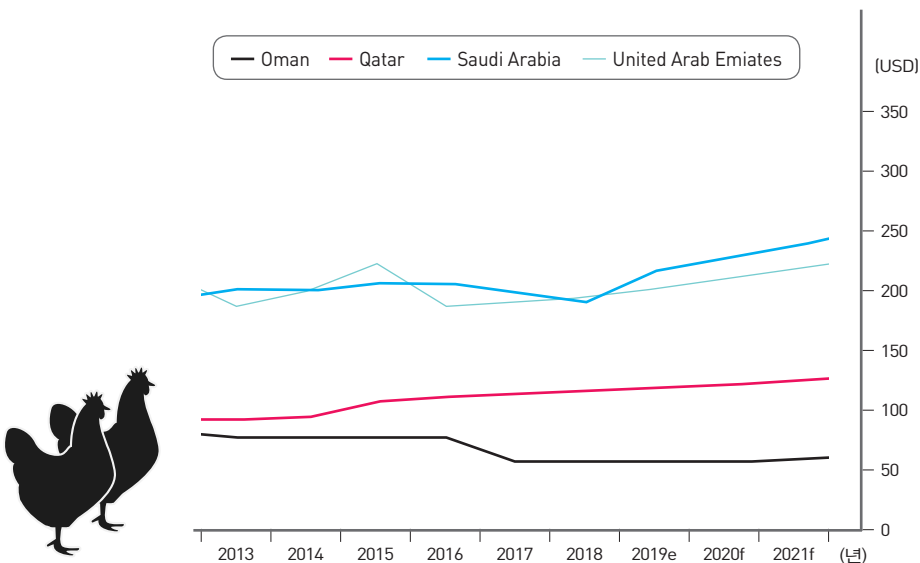
가금육 소비량의 10%에 불과한 내수 생산량

지난 10년간 중동 지역의 닭고기 수입량은 급증하였으며, 현

두바이 엑스포 개최에 따른 가금육 수입 전망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개최로 국내 경제활동이 더욱 활발

| 중동 국가별 1인당 가금류 판매 실적 |



출처 : National Sources, Fitch Solutions

해짐에 따라 가금육 소비량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엑스포 준비에 박차를 가했던 2019년도에는 430ha에 달하는 엑스포 부지에 전시장을 비롯하여 관광시설, 호텔, 지하철 등 주요 건설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는 다른 산업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랍에미리트 내 닭고기 소비량에도 영향을 주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엑스포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매점,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 등을 포함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으며, 엑스포 개최로 인한 관광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2년 동안 엑스포 관련 수요가 가금육 소비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엑스포 개최로 인해 현재 아랍에미리트 가금육 수입 수요는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엑스포 이후인 2021년부터는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엑스포 이후 건설 부문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 수요 감소, 건설 인력 감소 등이 불러일으킬 가금육 소비 성장 감소는 건설 산업과 관련된 케이터링 업체, 가금육 제품 생산자 등 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에 대한 전망도 밝지만은 못하다.

이에 더해 향후 식량안보 문제에서 기인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가금육 국내 생산 지원 증가로 수입 의존도 다소 약화, 자국민 인력 채용 증가 움직임 등으로 인한 외국인(아랍에미리트 인구 88.5%가 외국인으로 구성) 인력 감소 등이 전반적인 가금육 소비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할랄 인증받은 한국 삼계탕 제품의 시장 진출

지난 2019년 3월, 할랄 인증을 받은 한국 삼계탕 제품이 아랍에미리트에 처음으로 수출되면서 중동 시장의 빔장을 열었다. 이는 2015년 한국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랍에미리트와 '농업 및 할랄 식품 협력(MOU)'을 체결하고 정부 간 축산물 검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거둔 쾌거였다.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가금육 수출액이 2018년 대비 1,101.8%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국의 대표 건강식품인 삼계탕(열처리 가금육 가공식품)의 중동 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2020년 엑스포 개최로 인한 경제 성장세를 등에 업고 가금육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한국 삼계탕 제품 또한 건강·프리미엄 제품군으로 틈새시장을 노리며 현지에서 꾸준히 유통되고 있다.



국제 할랄 인증을 받은 마할로 삼계탕

출처: 자연일가

한국 삼계탕 제품은 현지 시장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열 가공 가금육 제품으로 차별성을 갖추고 있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건강·프리미엄 제품이라는 점을 어필 포인트로 내세울 수 있다. 엑스포 이후 전반적인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삼계탕만의 뛰어난 제품성을 활용하여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가금육 시장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Point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중동 소비자들을 겨냥

2020년 두바이 엑스포는 한국의 다양한 가금육 제품과 브랜드 등을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임이 분명해 보인다. 엑스포 이후에는 아랍에미리트 경제 성장 둔화가 전망되는 만큼 전반적인 가금육 수입량은 감소할 수 있으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새롭고 기발하며 건강한 제품을 원한다.

한국의 가금육 수출업체들은 현재의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삼계탕 제품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금육 제품을 개발하고 선보일 필요가 있다.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는 중동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한국 식품만의 건강·프리미엄 이미지를 내세운다면 경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아랍에미리트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